



박주영 "FC서울, 우승 경쟁팀으로 돌아가야"

2년 전 우승팀 위용無 잔류 경쟁 수모

"누가 있던 FC서울은 챔피언스리그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우승 경쟁을 하는 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FC서울의 간판스타인 박주영이 내놓은 간결한 메시지다. 서울은 9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EB하나은행 K리그 승강 플레이오프 2018 2차전에서 부산 아이파크와 1-1로 비겼다. 원정으로 치러진 1차전에서 3-1 승리를 거둔 서울은 1.2차전 합계 4-2로 부산을 따돌리고 잔류에 성공했다.

박주영은 0-1로 끌려가던 후반 추가시간 부산 골키퍼 구상민이 전진한 틈을 놓치지 않고 장거리 슈팅을 때려 쐐기를 박았다. 박주영은 "좋은 날 팬들이 많이 찾아오셨다.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선수들이 위기 속에서도 봉착서 준비해 잘 넘긴 것 같아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어쨌든 경기는 끝났고 서울은 글자 그대로 '죽다 살아났다'. 올 시즌 서울에게 2년 전 우승팀의 위용은 운데간데없었다. 사상 첫 하위 스플릿으로 떨어진 서울은 K리그 마지막 2경기에서 모두 패해 승강 플레이오프로 내몰리는 수모를 당했다. 잔류라는 목표를 달성하긴 했으나 이미 체면은 크게 구긴 뒤였다.

박주영 개인적으로도 불만족스러운 한 해였다. 지난 4월에는 자신의 SNS에 "2년 동안 아무것도 나이지 않는 FC서울이 미안하고 죄송합니다"는 글을 남겨 논란을 일으켰다. 박주영이 언급한 2년이 현선홍

진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기간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박주영은 그라운드보다는 바깥에서 더욱 화제가 됐다. 이윤용 감독대행 시절에도 그랬다. 부침 속에 출전 기회를 얻지 못하던 박주영은 최 감독이 가세한 뒤에야 갈증을 풀 수 있었다.

박주영은 "밖에서 볼 때 논란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안에서 보지 못하기에 그렇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것 같다"면서 "경기에 참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팀이 좋지 않을 때 마음이 아팠다. 선수들이 '형, 왜 경기에 못 나가', '왜 훈련을 못 해'라고 물어볼 때가 가장 답답했다"고 털어놓았다.

이어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훈련을 빠지지 않으면서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이었다. 감독님이 새로 오신 뒤 훈련과 경기에 복귀했다. 1분이든, 어떤 상황이든 최선을 다하려고 했다"고 덧붙였다.

내년 시즌 목표는 분명했다. 서울을 다시 정상권 근처로 올려두는 것이었다.

"감독님께서 내년 구상을 하고 계시는 것 같다. 나와 모든 선수들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박주영은 "감독님이 원하는 팀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어떤 상황이 되든 목표를 갖고 해야 한다. 누가 있던 서울은 ACL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우승 경쟁을 하는 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시스

45세 이치로, 내년에도 ML서 뛰다

"시애틀과 연내 정식 계약"

올해 5월부터 구단 직원으로 일해 온 '타격 기계' 이치로 스키(45)가 내년에도 다시 메이저리그 선수로 뛸 전망이다.

스포츠 호치 스포츠 닷폰을 비롯한 일본 언론들은 11일 "이치로가 올해 안에 시애틀 매리너스와 메이저리그 계약을 맺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치로의 에이전트인 존 보그스는 지난 10일(한국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시작한 메이저리그 원터 미팅에 참석 중이다.

보그스는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계약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인센티브를 포함해 세부 사항을 조율하는 중이다. 올해 안에 정식으로 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시스

FA 최대어 양의지, NC 유니폼 입는다

4년 총액 125억...이대호 이어 역대 두번째 규모 이동욱 감독 "포수 고민 해소·공격력보강 효과"

올 겨울 자유계약선수(FA) 시장의 최대어 양의지(31)의 목적이 결정됐다. NC 다이노스가.

NC는 11일 양의지와 계약기간 4년, 총액 125억원에 계약을 했다고 밝혔다. 2019~2022년 계약금 60억원, 연봉 65억원의 조건이다.

이는 역대 두 번째 규모다. 이대호가 2017년 롯데 자이언츠와 계약할 때 기록한 150억원이 기존의 FA 최대 규모 계약이다.

양의지는 지난 시즌을 마친 뒤 강민호가 삼성 라이온즈와 계약할 때 작성한 포수 최고액(4년 80억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지난 시즌을 마친 뒤 새롭게 NC 지휘봉을 잡은 이동욱 감독은 "포수에 대한 고민을 해소하면서 공격력도 보강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양의지는 "새로운 기회를 찾아 도전을 선택했다.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선수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기회를 주신 NC 구단에 감사하다"며 "지금의 저를 있게

해주신 두산 구단과 김태형 감독님, 동료 선수들, 그리고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다.

김종문 NC 단장은 "장원 새 야구장 시대에 맞춰 창원시민과 경남도민의 관심에 화답하는 길은 선수단에 과감히 투자해 전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다이노스가 내년 가을야구에 다시 도전하며 강팀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공수를 겸비해 현역 최고의 포수로 손꼽히는 양의지는 올 겨울 FA 시장의 최대어로 꼽혔다.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1군 무대에서 뛴 양의지는 통산 1066경기에 출전해 타율 0.299 125홈런 547타점 474득점을 기록했다.

올 시즌에도 133경기에 출전해 타율 0.358(439타수 157안타) 23홈런 77타점 6도루 84득점의 성적을 거뒀다. 여기에 출루율 0.427, 장타율 0.585를 기록했다. 타율 2위, 출루율 2위, OPS(출루율+장타

율) 1.012로 4위를 차지했다. 여기에 뛰어난 투수 리드와 안정적인 블로킹, 도루 저지 능력을 고루 갖추고 있다. 올 시즌 도루 저지율 37.8%로 100경기 이상 출전한 포수 중 1위다. 뛰어난 투수 리드는 두산 젊은 투수들의 성장에도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리그 전체가 '포수난'에 시달리고 있어 걸출한 포수 양의지의 몸값이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주전 포수 김태군의 입대 공백을 힘겹게 메우던 NC는 거액을 투자해 안방에 안정감을 더할 수 있게 됐다. 타선에도 보탬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

NC는 12월 중 경남 창원에서 양의지의 입단식을 개최한다. 양의지는 이 자리에서 내년 시즌 각오와 경남에서 펼칠 사회공헌 활동 계획을 설명할 계획이다.

양의지마저 떠난 두산, 또 FA 단속 실패

두산 베어스가 또다시 자유계약선수(FA) 단속에 실패했다. 올 겨울 자유계약선수(FA) 시장의 최대어 양의지(31)를 잡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더 큰 금액을 내민 NC 다이노스와의 영입 경쟁에서 밀렸다.

NC는 11일 올 겨울 자유계약선수(FA) 시장의 최대어인 양의지와

행보를 보였다. 2014년 11월 FA 장원준을 계약기간 4년, 총액 84억원에 영입했다. 이듬 해 12월에는 오재원을 4년 38억 원에, 2016년 11월에는 김재호를 4년 50억 원에 붙잡으면서 내부 FA 단속에 성공했다.

2016시즌을 마치고 FA가 된 이

현은 3년 총액 80억 원을 받고 롯데 자이언츠로 이적했다.

두산 팬들에 더 큰 실망을 안긴 것은 김현수의 LG 트윈스 행이었다. 김현수는 지난해 12월 LG와 4년 총액 115억 원에 도장을 찍었다.

공수를 겸비하고 있는 양의지는 두산 전력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평가다.

두산은 공식적으로 7차례 양의지 측과 만나 협상을 벌였다. 최종적으로 계약기간 4년에 총액 120억 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옵션 10억 원이 포함돼 보장 금액은 110억 원이었다.

두산은 양의지의 공백을 메울 방안을 고심해야 한다. 박세혁, 이흥련 등 수준급 포수를 보유하고 있지만 현역 최고의 포수로 손꼽히는 양의지의 공백을 완벽하게 메우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4년 120억원 베풀어도 잡지 못한 양의지
지난해 김현수·민병헌 이어 '선수 유출'

계약기간 4년, 총액 65억 원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계약금 60억 원, 연봉 65억 원의 조건이다. 두산이 내부에서 FA 자격을 얻은 대형 선수를 잡지 못한 것은 낯설지 않은 풍경이다. 그래도 2014년부터는 적극적인

원석을 삼성 라이온즈로 떠나보냈지만, 당시 두산은 이원석보다 김재호와의 계약에 더 힘을 쏟았다.

이원석을 시작으로 두산의 FA 유출은 이어졌다.

두산은 2017시즌을 마치고 내부 FA인 민병헌을 잡지 못했다. 민병

■ 숲이 있는

지리산 둘레길

바쁜 일상, 각박한 도시에서 벗어나 지리산에서 잠시 쉬어가세요

지리산 둘레길은 지리산 주변 3개도(전북, 전남, 경남) 5개 시·군(남원, 구례, 하동, 신정, 함양)을 잇는 295km의 장거리 도보길로 전남 구례군은 지리산은천, 칠성마을, 화연사, 섬진강, 운주루, 패야굴, 연곡사 등을 지나며 주원-산동 구간부터 물어재-기탄 구간까지 총 6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